전도보다 생식능력

(신명기 23:1~25)

1.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 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전도보다 생식능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전도보다 생식능력'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원래 일본 드라마인데 일본의 속담 중에 "꽃보다 경단(花より団子)"이라는 말이 있는데 '꽃구경보다 먼저 단 것을 먹자'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보다 생식능력'이라는 제목을 붙여 봅니다.
요즘은 불임부부 중에서 여자 쪽의 불임의 이유보다 남자 쪽의 불임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이전에 비해서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2014년에 20만 쌍의 불임부부 중에 여자 쪽의 이유가 156,000명이고 나머지가 남자로,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에 2.7% 증가한 수치로 28,000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44,000명으로 증가해서 67%늘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면 평균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현재 인구가 유지된다고 합니다만 계속 감소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큰 문제는 교회의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두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프랑스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극악한 테러가 벌어져서 온 세상이 소동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무서운 일이 교인의 감소입니다. 교인이 감소하는 이유는 전도를 안 한다거나 전도에 대한 강조가 약하다거나 전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전도보다 영적인 생식능력'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신앙상태나 마음상태가 생식능력이 없거나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자꾸만 전도를 기대하고 교육하고 강요합니다.
전도에 관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10년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는, 생식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임이 판명이 된 부부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강요하고 윽박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도를 강조하고 교육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차원의 생식

능력부터 점검을 해보아야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육체적 생식능력은 교육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신체의 생식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식능력이 있으면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전도를 말씀하셨지만 막24: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여 나타난 일은 '생식능력 부재의 인간들에게 생식능력이 주어진 것이고 생식능력이 주어졌으니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선민의 그룹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불임증은 신체상으로 여성 불임과 남성불임으로 나뉘는 것과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말하자면 선민에게는 남성불임만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는 내 속의 생명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이 한 번 태어나면 죽기 전까지는 육체의 생명은 유지되지만, 영적인 생명은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했으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받아들여지고 나면 생식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남성이고 아버지가 되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생식능력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전4: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복음으로 낳은 자녀를 말하는데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에게 불임 증상이 생긴다면 아버지 쪽에 불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어머니를 얘기한다면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씨인 복음은 공중에서 천둥이 치듯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전달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들은 복음을 남편에게 전달하면 영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가 됩니다. 복음의 자녀를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생식능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하십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문제가 있으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선민이 되기 위한 기본 자격으로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선민특징의 성격규정을 하신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이러한 자가 아니라면 선민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자라면 선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에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읽혀지는 이 말씀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가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남자들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

데, 사56: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고 말 자체가 바뀝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문자대로 이해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 당시에만 국한된 의미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언제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과,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두 가지를 통해 반드시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문자대로 쓰여 있는 것에 의미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총회에 입회하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의 그룹 속에서 ‘참 선민이라면 반드시 생식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19: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의 예가 바로 장가를 가지 않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고전4:15~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고환과 음경이 상하지 않은 자는 생명의 생식가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표현이 민망하지만 민망하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어서 여성들도 선민이라면 영적으로 고환과 음경이 상하지 않고 생식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생식능력을 통해서 번식되어야 하는 생명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거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맥락에서 생명은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뭔가 이름을 들여놓게 됩니다. ‘이름’이란 가리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그 이름을 들여놓게 되면, 그 이름이 살아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인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말고 다른 이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존재를 추구하고 존재로 배 부르려고 하고 존재를 벌려고 하고 존재를 많이 가지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획득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타락시킨 이후에는 이 생명의 자리에 돈이나 권력, 자녀형통 등의 이름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들여놓고 사업이 잘되기를 기도하는 중에도 구원을 받았다고 믿

는데, 이러한 문제에서부터 생식능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의 본래의 생식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서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지성소에 돈, 건강, 성공, 형통등과 같은 이 세상 것들을 들여놓은 후에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교회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말하는 본래의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어떤 존재의 이름을 들여놓는 이유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가져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지성소에는 내 인생의 행복의 이유라고 믿어지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사망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들여놓고 아주 열심히 살면서 철야기도 하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서는 백 년을 기다려도 또 다른 생명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생식능력이 부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전도하라'고 하니 '예수 잘 믿으면 돈 벌 수 있다'고 돈을 전도하게 됩니다. 돈 버는 방법으로 예수를 동원해서 돈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도해도 방법론으로 전도를 하는데 방법론 중의 예수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로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게 되면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말과 행동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포함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돈이 들어오면 모든 말과 행동의 배후에는 돈에 대한 열망이 들어있게 되므로 모든 말과 행동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고 예뻐하는 중에 돈에 대해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돈에 대해 먼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것들에 대한 열망이 씨가 되어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식되는 것인데 사망이 이식되는 것이고 사망의 생식력이 탁월해지는데 무서운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한 장을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25절까지 있는데 앞의 두 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QT를 하시면 됩니다. 앞부분에서 드러난 주제로 그 다음 구절들과 연관성을 찾으며 이해하시면 위험하지 않은 QT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번제의 주목적은 단위별로 한 장씩 성경공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

루 필요한 우리의 생명현상인 생식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을 오늘 또다시 생활화하기 위해서 붙잡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의 번제입니다. 또한 구원과 은혜 충만한 삶은 성경을 다 알아야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나 빌립이나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보다 구약성경을 몰랐을 것입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쓰여 있어서 이사야만 해도 몇 광주리나 되는 두루마리를 누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겠습니까? 결국 생명과 구원의 현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번제를 하는 것인데,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이 들어오면 이미 선민 됨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속에 사망의 씨들인 돈의 씨, 권력의 씨, 건강의 씨 같은 다른 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번제를 통해 생식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고, 나 자신이 생명과 구원에 머물러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 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사생아 자신으로 보자면 너무나 억울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신체적, 사회적으로 사생아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선민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 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도 1절과 마찬가지로 참 선민이라면 절대로 사생아적 특징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현상이 있는데 ‘사생아적 특징이 나타난다면 그는 선민일 수 없다’는 말을 ‘선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부부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버림받은 사생아가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의미가 없지 않고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선민은 참 생명과 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생식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선민이라면 그에게서 절대로 사생아적 특징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생아적 대표적인 특징은 주님께서 마6:31~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왜 돈 걱정을 합니까? ‘하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거나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생아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민에게 풍요와 다산을 원하는 우상숭배가 나타나지 않을 것은, 풍요와 다산의 문제는 완전히 아버지의 장중에 있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일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9절 이하에 보면 진영 가운데로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선민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10~14절에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 해 질 때에 목욕

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라고 하십니다.

'몽설(몽정)하지 말라, 배설물을 진영 안에 두지 말고 진영 바깥에 두라'고 하시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몽설'은 민망한 표현입니다만 피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표현으로, 생명과 구원을 아는 선민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말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마땅히 있어야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의 씨인 생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유실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에 지금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영적으로 몽설을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이므로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므로 몽설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배설물'에 대한 것도 사생아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사람이 살다보면 이 세상 것이 자꾸 마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생각하는데 마음의 감정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걱정하면서 하는 생각, 근심하면서 하는 생각, 좋아서 하는 생각, 사랑해서 하는 생각, 보고 싶어서 하는 생각, 미워서 하는 생각, 보기 싫어서 하는 생각, 실패할까 하는 생각, 성공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표현되는데 '세상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에 담긴 것으로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설물을 진영 안에 둔다.'는 것은 '선민들끼리 배설물을 가지고 화제로 삼고 그것을 이슈로 삼고 목적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사생아의 기질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한 것들을(마음으로 좋아했던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배설물인 줄을 모르는 것이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생각하고 골똘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돈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십자가를 붙잡고 돈 문제에 대해서 죽어서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배설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민으로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됨이 없이 한다면 몽설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생명이 유실되어 버립니다. 마땅히 우리말과 행동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씨로 들어있어서 사람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표현되어야만 하는데, 말과 행동에서 유실되고 말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민망한 표현을 들어서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도보다 생식능력'입니다. 생식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구원 받아 구원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로마 시대 때에 목숨을 걸고 예수 이

름을 불렀던 것에 기인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면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에 돈을 들여놓고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고 도둑이고 나쁜 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와야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말과 모든 행동은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만 다 하나님을 향해있고 하나님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버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만난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이 벌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 받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전도는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생식능력이 있으면 구원과 생명을 마음에 품은 채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전도인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생명과 구원을 얻은 자에게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인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전도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해도 전도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를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전도를 교육받아서 성을 뒤집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교육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생식능력을 배양하고 나 자신이 먼저 생명과 구원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생식능력에 의해서 생명의 도가 전달되는 일은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나 자신이 생명과 구원의 상태에 머물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생식능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많은 자녀를 낳았듯이, 나도 복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